

제21기 동계 역사문화탐방 보고서

일정	2018년 11월 7일(수) ~ 11월 10일(토) (3박4일)	
탐방 주요 내용	1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릉 박물관 • 도자기 빚기 체험
	2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청지 • 병마용갱 • 진시황릉 및 지하궁전
	3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서역사박물관 • 대안 / 소안탑 • 비림 및 문서거리 • 서안박물관 • 회족거리 • 덕발장 교자연 빚기 체험
	4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안성벽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제21기 해외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원으로 중국 시안(西安)에 다녀왔다. 두 번째 중국 방문이지만 나에게는 좀 특별한 시간이 아닐 수 없었다. 그것은 만학도인 나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온 것은 앞으로의 학교생활과 일상의 삶에 큰 동기부여가 되는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라기보다는 아쉬웠던 3박 4일의 일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지도교수님과 두 가이드님, 그리고 학우님들과 함께한 추억의 시간을 되새겨보려 한다.

가이드님과 약속한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첫차에 몸을 실었다. 차창 밖으로는 가늘게 비가 내렸다. 공항버스는 비가 내리는 한적한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려나갔다. 새벽공기를 가르며 달려온 공항버스는 예정시간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하였다. 오리엔테이션 때 정한 약속 시간이 아직 한참 남았다. 마침 제2터미널이 처음이라 이곳저곳으로 서성이며 사진도 몇 장 찍고 주변을 돌아보며 남은 시간을 보냈다. 1터미널보다 붐비지 않고 차분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

들뜬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발길을 옮겼다. 약속 장소에는 벌써 가이드님을 비롯하여 몇 명의 학우님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를 먼저 발견한 가이드님이 그곳으로 오라는 손짓을 했다. OT 때 잠깐 봤을 뿐인데 나를 알아보다니 역시 프로답다. 먼저 도착한 일행들과 간단한 목례를 하고 아직은 서로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여권을 받기 위해 기다렸다. 잠시 후 여권을 받아 출국심사를 마치고 탑승 게이트로 발길을 옮겼다. 게이트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그렇게 긴 비행시간은 아니었으나 기류가 불안정하여 기체가 제법 흔들렸다. 그래도 내 좌석 앞에 통로가 있어서 다리를 쭉 뻗을 수 있어서 좋았다.

세 시간여의 비행을 마치고 서안 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 창을 통해 비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짐을 챙겨서 조용한 로비를 따라 출구로 나섰다. 잠시 후 작은 키에 전형적인 교포 말씨를 구사하는 정장 차림의 현지 가이드님을 만났다. 가이드님은 이곳은 이삼일 전부터 비가 내렸다고 한다. 밖으로 나오니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고 가늘게 비가 내리고 있었다. 첫 일정부터 비가 오는 가운데 탐방을 시작하는구나,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마치 초등학교생처럼 가이드님을 졸졸 따라 공항을 빠져 나왔다. 시간은 어느듯 점심 시간을 훌쩍 넘고 있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리는 점심 식사가 준비된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 한양릉, 도자기 체험



점심 식사가 끝나고 드디어 본격적인 역사·문화 탐방이 시작되었다. 비가 조금 내렸지만 탐방 일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버스로 이동하여 첫 탐방지인 한양릉(漢陽陵)에 도착했다. 오석으로 된 안내문 전면에는 四漢帝陵 陽陵 이라는 글자가, 후면에는 陽陵 是 西漢王朝第四代皇帝漢景帝劉啓與其皇后王氏 (중략) 合葬陵園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또한 한경제가 公元前141년에 죽어 양릉에 입장되었고, 왕황후는 한경제가 죽은 후 15년 뒤인 公元前126년에 죽어서 합장되었다고 새겨져 있었다. 이곳은 1990년 서안-함양 간 공항 고속도로 공사를 하던 중 발견되었고, 시안 일대에 산재한 황제들의 무덤 중에서 유일하게 발굴된 것으로 '중국 최대의 지하 박물관'으로 불리는 곳이다. 지하 박물관 내부 관람 환경을 위해 입구에서 비닐로 만들어진 덧신을 신어야 했다. 지하로 들어서자 발굴 현장이 유리관으로 보호되어 있었다. 발굴된 장소 바로 위에서 수천 년 전의 유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부장 갯에는 사람과 동물 모양의 도용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 순장 제도가 없었던 당시에는 이처럼 흙으로 인간이나 동물 모양을 만들어 죽은 사람과 함께 매장한 것이다. 여러 형태의 도용을 볼 수 있었다. 남성과 여성, 환관 등의 사람 형태와 돼지, 닭, 개, 말 등 가축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다. 특이한 것은 모든 사람 모형에는 당시 실크 옷을 입혔는데, 2,000년 오랜 시간의 흐름속에 부식되어 없어지고 나체가 되었다 한다. 모든 도형의 크기가 50~60cm 정도로 작아서 귀여웠다.

한양능 지하관 관람을 마치고 다음에는 도자기 체험을 위해 체험관으로 도보로 이동했다. 오래된 듯 보이는 목조 건물 내부에는 체험을 하기위한 긴 탁자와 그 위에 틀과 진흙이 놓여 있었다. 그곳에서 도용을 만드는 과정 설명을 듣고, 석고로 만들어진 틀-동물(닭 밖에 없었음)과 여인 형상-에 진흙을 넣고 틀을 만드는 것과 기와에 새겨진 글씨를 탁본하는 체험을 하였다. 우리 일행은 진지한 자세로 도용을 만들고 탁본을 하였다.

첫 탐방 일정을 마치고 저녁 식사 장소로 이동했다. 이동 중 강태공이 낚시를 즐겼다는 강이 보였다. 강물에 비친 석양이 하루의 피곤함을 달래 주며 서안 시내 입성을 반겨 주었다. 번잡한 도로, 시내 외곽의 고층 아파트, 네온 불빛으로 둘러싸인 성곽이 파노라마처럼 차창을 스쳐 지나갔다. 과거와 현대가 조화롭게 어울리는 거리의 풍경이다. 저녁은 사천요리를 먹었다. 끈기없는 쌀밥과 7~8가지의 요리가 주린 배를 채워주었다. 맛이 탁월한 요리도, 딱히 거부감이 가는 요리도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여정을 풀 호텔로 향했다. '시안 순다 쟈들맨 호텔' 별이 다섯 개다.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니 저 멀리 장안성벽 둘레의 네온이 눈에 들어온다. 바쁜 하루가 지나갔다. 내일을 기대하며 잠을 청했다.

◎ 화청지, 병마용갱, 진시황릉, 지하궁전



탐방 이튿날에는 서안 시내에서 동쪽으로 약 30킬로미터 떨어진 화청지 탐방을 갔다. 당나라 6대 왕이었던 현종과 양귀비가 겨울 별장으로 이용했다고 한다. 그 이전에 3,000년 전 주나라 때부터 당나라 때까지 황제와 조정 대신들이 애용했다고 한다. 출입구 앞 작은 광장에는 현종과 양귀비가 춤을 추는 대형 조각이 중앙에 놓여져 있었다. 많은 관광객이 그 조각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느라 분주한 몸놀림을 하고 있었다. 매표 후 출입구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12.12라는 숫자가 적힌 대형 영화 광고판 같은 것이 눈에 들어 왔다. 순간 한국의 12.12사태가 생각났다. 그러나 이곳 대형 간판의 의미는 달랐다. 이곳은 시안 사변의 무대이었다고 한다. 1936년 국민당 당수 장제스의 부하였던 장쉐량이, 공산당과의 내전을 중지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요구하면서 결단을 미루고 있던 장제스를 연금한 곳이기도 하다. 그 후 국민당과 공산당은 내전을 중지하고 항일 전쟁을 수행했다고 한다. 화청지에서 모르고 있었던 중국 현대사와, 팔로군행진곡(이후 중국인민해방군 군가로 불림)을 우리나라 정육성이라는 사람이 작곡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화청지에는 지금도 제법 많은 양의 온천수가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에 사용했던 여러 개의 목욕탕이 보존되어 있었다. 현종이 사용했다는 연화탕(蓮花湯), 양귀비가 사용한 해당탕(海棠湯), 당태종 이세민이 사용했다는 성진탕(星辰湯), 주방장들이 사용했다는 주방장탕, 그리고 건물 밖 태자탕이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머물게 하였다. 온천욕 당시 연화탕에서 사용한 온천수가 해당탕으로 흘러내려 양귀비가 사용하고, 해당탕에서 다시 흘러내려 마지막으로 대신들과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사용했다고 한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고 따스했다. 우리 조는 단체 티를 입고 조별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포즈로 사진을 찍으며, 일상과 학업에서 탈출한 기분을 만끽하며 화청지의 여러 볼거리를 즐겼다.

점심 식사 후 병마용갱으로 향했다. 입구 주변 주차장 부지부터 그 범위가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의 표로 병마용갱, 지하궁전, 진시황릉 세 곳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윽고 기대에 부풀었던 병마용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병마용갱은 진시황제 어머니가 아들 진시황제를 위해 만들기 시작하여 진시황제의 아들 때까지 37년 간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 우리의 친절하고 박식한 안용 가이드님에 따르면 이 병마용갱이 중국의 여행사를 먹여 살린다고 한다. 전시관 내부에는 각 여행사 가이드의 설명 소리와 관람객들의 웅성거림이 어울려서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아버지를 위해 딸이 안내파나에 적힌 글씨를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해 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먼저 전시관 규모와 형태가 나의 생각과 달랐다. 제1전시관은 발굴된 현장 그대로를 전시관으로 만들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입장하여 관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특이하였다. 또한 모든 병마용이 각기 다른 형태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관람하는 내내 감탄이 절로 나왔다. 모든 도용은 1:1비율로 만들어졌는데, 진시황제가 '나를 지켜야 할 사람은 키가 크야 한다'고 해서 크게 만들었다고 한다. 제1관에는 주력부대, 제3관에는 기동부대, 제2관에는 지휘부로 추측하고 있다. 진시황릉을 중심으로 360도 방향으로 배장묘 600개를 만들었다고 한다. 지금 발굴된 것은 그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전체의 규모를 생각하니 상상을 초월하고도 남음이 있겠다. 전시관을 나오면서 순장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도용을 사용했지만, 순장제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사마천의 사기를 근거로 하여 만들어 놓은 지하궁전은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화려함을 더했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최초에 115미터의 높이로 만들어진 진시황릉은 현재 49미터 정도 만이 남아 작은 산봉우리 같아서 그 자체로는 능을 찾는 이들에게 감흥을 자아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 섬서역사박물관, 대안탑

탐방 사흘날에는 일정이 많이 잡혀 있다. 먼저 섬서 역사박물관을 둘러 보았다. 섬서 역사박물관은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현대화된 역사박물관으로 인정받는 곳이다. 여기에는 출토된 유물 38만 개 중 한·당·진 세 나라의 유물을 중심으로 약 5,000개 정도가 전시된 곳이다. 측천무후의 아들 무덤에 있는 벽화에는 신라 사신이 등장하는데, 나·당 동맹에 대한 역사를 고찰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한다.

입구에 진시황의 치적이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 있었다. 진시황제(BC259~BC210)는 12살(BC247)에 즉위하였지만 당시에는 실권은 없었고, 22살에 실권을 잡아 39살(BC221)에 중국을 통일하고 스스로 시황제로 군림하다가 49살에 전국 순회 도중 그 생을 마감했다. 진시황제는 봉건제를 폐지하고 중앙집권제를 실시했다. 또한 강력한 통일 정책도 펼쳤는데 화폐와 도량의 통일, 문자와 법률 통일, 수레바퀴 통일로 전국을 관통하는 직도를 닦았다. 한편 북방 흉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는 일에 착취 당하고, 가혹한 형벌에 반발하는 반란으로 인해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진시황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다음 일정으로 대안탑을 찾았다. 대안탑은 삼장법사가 인도 수행 17년 동안의 여정을 기록한 '삼장대당서역기'를 기록하고,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번역하는 장소로 만들어진 탑이다. 大雁塔의 '雁'은 기러기 안자이다. 탑 이름에 기러기 안자를 사용한 이유는 삼장법사가 인도 수행 여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기러기가 도와주었는데 기러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 탑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대안탑은 벽돌로 쌓은 것으로 7층 구조에 높이가 75이다. 서안이 발전하면서 지하수를 사용함에 따라 침식 작용이 일어나 탑이 비드듬이 기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 중국의 최초 사찰에 대해 알게 되었다. 중국 최초의 사찰은 현재 낙양에 있는 "백마사"란 절로 2,000년 전에 건축되었다고 한다. 중국의 사찰 대웅전은 신을 신고 정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 한국 사찰 문화와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 비림박물관, 장안성벽



비림박물관은 비석이 숲을 이루었다는 곳이다. 100여 년 전 청나라 비석부터 1900년 전 한나라 비석까지 3,000여 개의 비석 중 1,000여 개가 전시되었다. 비림에 도착하자 마침 소방훈련을 하고 있었다. 뜻하지 않게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었다. 훈련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영성해 보였다. 사람들이 연막이 화염처럼 퍼져 나오는 곳으로 물통을 들고 뛰어가기도 하고, 수건으로 입을 막고 안쪽에서 밖으로 뛰쳐 나오는 등 실상황과 같이 행동하는 모습이 탐방의 재미를 더해 주었다. 제1실 앞에서 훈련이 실시돼 우린 제2실부터 관람하였다.

제2실에는 당나라의 유명한 비석 위주로 진열되어 있었다. 비림에서 처음 만난 비석은 '大秦景教流行中國碑'이다. 이 비석은 고대 중외문화교류와 중국 초기 기독교 전파를 제공하는 보귀한 자료라는 안내문이 새겨져 있었다. "景教"로 전해진 기독교 복음이 중국에서 150여 년 동안의 활동 정황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고 한다. '대진경교유행중국비'는 나에게 특별히 각인되었다.

제3실에는 전서, 예서, 해서, 황서, 초서 등, 역대 각종 서체로 된 비석이 진열되어 있었다. 이러한 비석들을 통해서 중국의 서법 예술이 발전 변화한 개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제4실에는 송, 명 시기의 명가사 문서의 흔적이 각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송나라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석각도화가 촘촘히 세워져 있었다. 무엇보다도 관우가 유비에게 보낸 대나무 잎 편지 내용이 새겨진 '관제시죽' 비석이 인상 깊었다. 조조의 회유에 응하지 않고 유비에 대한 의리를 보이며 충심을 전했다하니.....

제1실은 한 권의 석경으로 만들어진 114개의 비석이 전시되어 있었다. 총 65만 글자의 석경을 일곱 번 새겼는데 다섯 개는 없어지고, 현재 두 개만 남아 있다고 한다.

탐방 마지막 날 숙소에서 곧장 시안 성벽으로 향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벌써 우리보다 먼저 성벽을 관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성벽은 수나라 말기, 당나라 초에 쌓은 것이다. 당시에는 황축이라고 하여 황토와 석회를 섞어서 굳게 다져 성벽을 쌓았다고 한다. 지금의 성벽은 시안 시가 1983년부터 무려 20년에 걸쳐서 명나라 때의 성벽을 복원하였는데, 높이 12m, 폭 15m, 총 길이 13.7km에 달하는 성벽으로, 총 98개의 성루가 성벽을 따라 이어져 있다고 한다. 성 밖으로는 외곽 방어선인 해자가 있고, 해자와 성곽 사이에는 산책로와 수목이 조성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쉼터로 또한 운동 장소로 활용되고 있었다.

성벽 위에는 폭이 넓은 관계로 자전거 하이킹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 대여점이 있었다. 한 바퀴 돌고 싶은 충동이 생겼지만 그리 시간이 늑늑하지 않아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성벽을 거니는데 전동차가 운행되는 것도 보였다. 매년 4월에는 이곳에서 마라톤도 실시 한다고 한다. 성벽 관람을 마지막으로 3박 4일 동안의 중국 역사·문화탐방 여정이 막을 내렸다.

이번 역사·문화탐방은 한나라와 당나라, 그리고 진나라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둘러 보았다. 14억 대국의 5,000년 역사를 짧은 일정에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알지 못했던 역사를 알게 되고,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운이 오래 간직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아직도 한참 배워야 하는 중국어를 현지에서 사용해 본 경험과 장차 한국어교원으로서 중국 학습자들과의 대화의 장을 넓힐 수 있는 자료를 얻었다는 점에서 이번 역사·문화탐방이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끝으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학교와 담당 교수님 및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탐방 일정 내내 우리 일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유적지를 설명해준 안용 현지 가이드님과 OT부터 출국, 입국 시까지 일일이 챙겨주신 김하나 가이드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구희정 지도교수님과 열심히 사진을 올려 주신 계혜정님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